

Ⅲ. 圓佛教 修行 Q-set 開發 및 妥當化 研究

이 건 인

(원광대학교, 수위단회전문위원)

목 차

I. 緒 論	31
II. 研究 方法	38
III. 圓佛教 修行 Q-set의 開發	43
IV. 圓佛教 修行 Q-set의 妥當化	48
V. 結 論	50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대부분의 心理學的 研究는 法則性和 因果性을 강조한다. 따라서 研究 戰略은 行動 決定 因子를 지나치게 강조해 全體로서의 人間(person as a whole)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주로 集團 統計, 集團 比較에 의존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情報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Heinemann & Shontz, 1985:11). 그래서 複雜하고 獨特하며 多元的인, 그리고 異質的으로 組織된 實體로서의 個人을 研究하기 위해서는 傳統的 研究 戰略에 대한 수정이 要請된다. 최근에는 종래의 量的 研究에 대한 補完으로 全體的이고 質的 接近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다. 상담심리연구에서 특히 그러하다(Goldman, 1979, 1983; Harmon, 1983; Neimeyer & Resnikoff, 1983; Thoresen, 1980). 이같은 要請에 부응하는 接近法의 하나가 Q-方法論(Q-methodology)이라고 할 수 있다.

Q-方法論은 “支配的인 科學的 客觀主義에 의해 무시 되고 있는 主觀性을 探究하는 方法으로 設計된 科學的 節次이다”(Stephenson, 1988:205). 이는 統計的 分析力을 파괴하지 않고 개인의 現象學的 世界를 統計的으로 分析하는 手段이다(Stephen,

1985:193).

Q-方法論은 相關關係와 要因分析等 統計的 方法을 適用하여 ‘人間的 主觀性’ 곧 個人的으로 重要な 問題에 대한 한 個人的 私的인 見解(a person's point of view)를 測定하는 技法이다(McKeown & Thomas, 1988:7). Q-方法論은 他人과 다르게 反應하는 個人 原型(person-prototype)이나 被驗者 群集(사람 要因)을 밝히는 統計 技法이다(Daniel, 1993:6). 다시말하면, 一連의 문항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개인의 原型에 대한 情報를 提供함으로써 態度, 選好, 思考, 行動과 같은 變因에 대한 主觀的 反應의 類似性에 따라 個人 群集(cluster)을 발견해 내는 방법이다(Carr, 1992:134).

要因分析의 原資料行列은 變因 × 사람이다. 여기에서 Q-技法은 個人間 相關行列을 要因分析한다. 한편 變因間 相關行列을 要因分析하는 것이 R-技法이다.

Q-方法論은 1935년 Stephenson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래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거듭되어 왔다. 지난 50-60년 동안 社會科學 領域에서 Q-方法論에 관한 연구와 Q-方法論을 適用한 研究는 1500여편 이상이 된다(Brown, 1986:72). Q-方法論에 관련된 연구는 1996년 5월 28일 현재로 ERIC에 수록된 것이 294편 그리고 PSYINFO에 수록된 것이 552편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 될 수 있다.

첫째 方法論으로서 Q-技法의 特徵을 밝힌 研究, 둘째, Q-set 開發과 그 關聯 研究, 셋째, 사람 群集을 밝히기 위한 研究한 것, 넷째, 人間關係 및 意思疏通 등에 Q-方法論을 適用하여 研究한 것, 다섯째, 指導性 類型의 研究에 Q-方法論을 適用한 것, 여섯째, 父母의 養育行動과 愛着 類型에 관한 研究들이 있고, 일곱째, 學校風土와 學校와 地域社會와의 協力 樣式을 研究한 것, 여덟째, 教師의 行動, 態度, 教授形態와 學生의 學業成就에 관한 研究, 아홉째, 兒童, 靑少年의 社會性 研究에 Q-方法論을 適用한 研究, 열째, 學習과 訓練 프로그램의 效果 및 類型을 糾明하기 위한 研究, 열하나째, 消費者 行動과 管理經營行動을 研究하는데 Q-方法論이 適用한 것, 열둘째, 看護士의 態度와 看護行動, 病的 診斷에 Q-方法論을 適用한 것, 열셋째, 人性 및 自我概念과 관련된 研究, 열넷째, 스트레스 및 適應 過程에 Q-技法을 적용한 研究, 열다섯째, 相談行動과 相談 效果를 研究한 것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理論 檢證 및 Q-set의 開發에 관한 研究(백용덕, 1985, 1992, 1993, 1995; 김준권, 1989; 정혜영, 1995), 特性의 類型化에 관한 研究(문경서, 김광일, 1987; 이경섭 외, 1989), Q-技法과 R-技法의 비교 研究(이해춘, 1993; 전숙현, 1995)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일 수 있으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理論과 適用의 어려움에 있으며 또 하나는 Q-方法을 위한 Q-set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Q-set가 없으니 Q-

技法的 연구가 부진할 수 밖에 없다. Q-set의 개발은 Q-技法的 연구의 先行 條件이고 Q-set는 그 必要條件이다. Q-技法的 연구는 Q-分類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Q-set 없는 Q-技法的 연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백용덕, 1993:243).

東洋思想 특히 東洋宗教는 Erich From, Carl Rogers, Fritz Perls, Karen Horney 등의 심리학자들에 의하여 계속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윤호균, 1983:107). 이는 Jung이 東洋思想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일본의 스즈끼(鈴木)가 禪을 西洋에 소개를 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러나 '삶의 窮極'까지를 다루어야 하는 宗教의 核心은 自然科學의 方法이나 概念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 학문이라기 보다는 道의 경지요, 체험을 통해 體得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이동식, 1975:81-89). 그것은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가면서 스스로 걸어가야 하고 다다라야 할 '意味의 世界'요 '삶의 世界'이지 결코 論理나 操作을 통하여 解明되고 證明될 수 있는 '事實의 世界'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傳統的 客觀的으로 研究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私的인 經驗에 따른 '內的 意味의 世界'를 갖는 個人 또는 集團을 研究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接近方法이 要請된다.

'物質이 開關되니 精神을 開關하자'라는 理念을 가지고 設立된 圓佛敎는 精神開關을 具現하는 方法으로 眞理의 宗教의 信仰과 事實의 道德의 訓練을 強調한다(正典: 21). 事實의 道德의 訓練은 宇宙의 窮極의 眞理이며 인간의 本性인 一圓의 眞理에 바탕하여 그 眞理를 믿고 그 실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부단히 실천해 가는 노력이다. 곧 현실 생활가운데서 精神修養을 통해 物質에 끌리지 않는 主體를 확립하고 事理研究를 통해 順理와 合理를 體得하고 作業取舍를 통해 正當한 行動을 하여 恩惠를 發顯 하는 것이다(圓佛敎 敎古叢刊 2, 1969:338). 이는 곧 三學修行이다. 事實의 이고 具體的인 日常生活에서 直接 實踐으로 修行하는 것이 圓佛敎 修行의 特徵이다. 지금까지 圓佛敎 關聯 論文 中에서 圓佛敎 修行 또는 禪에 대한 敎理的 解釋이나 그 實踐方法에 초점을 둔 研究는 있지만 修行過程이나 그 方法에 대한 實證的 研究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宗教敎理는 科學的 理論이나 實驗을 통한 證明에 의해서 認定되기 보다는 日常生活에서 그 眞僞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形而上學的 次元의 觀念과 直觀에 의해 깨우친 삶의 窮極의 眞理를 實生活에 效率的으로 活用하기 위해서는 形而下學的인 次元에서 事實的 理論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融和시킴으로써 하나의 世界(眞理)에 接近 해가는 努力이 필요하다고 본다. 日常生活 속에서 보다 效率的이고 體系的인 修行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科學的인 研究를 도모하기 위해서 個人의 現象學的 世界를 科學的으로 測定하기 위한 研究가 필요하다. 그리고 修行人的 內的構造와 그 類型을 測定하기 위해서도 Q-set의 開發이 절실히 要請된다.

2. 研究의 目的과 問題

가. 研究의 目的

宗教人의 基本的 삶의 태도는 ‘窮極의 實在’을 믿고 이를 지향하는 삶의 자세에 있다. 修行人은 日常生活 속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窮極의 實在에 비추어 끊임없이 자신의 修行過程이나 態度를 檢討하고 改善해 나가야 한다. 이같은 圓佛敎 修行人의 ‘內的인 構造’를 科學的으로 測定하는 尺度가 필요하다.

이에 본 研究는 妥當하고 信賴로운 ‘圓佛敎 修行 Q-set’를 開發하려고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圓佛敎 敎理에 근거한 ‘圓佛敎 修行 Q-set’를 開發한다.

둘째, 開發한 Q-set의 妥當性을 統計的으로 檢證 한다. 원불교 수행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Q-set가 敎務와 豫備敎務 그리고 非敎徒를 變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셋째, 이 Q-set의 信賴性(再檢査 信賴度)을 統計的으로 檢證한다.

나. 研究 問題

앞에서 언급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본 研究가 解決해야 할 問題는 다음과 같다.

(1) ‘圓佛敎 修行 Q-set’의 開發

圓佛敎 敎理에 根據하여 ‘圓佛敎 修行 Q-set’를 開發하는 일은 쉽고 간단한 問題가 아니다. ‘삶의 窮極’까지를 다루어야 하는 宗教의 核心은 自然科學的 方法이나 概念으로 다루기 어려운 體驗을 통한 體得의 領域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宗教가 추구하는 ‘窮極의 世界’는 形而上學的 次元의 觀念的 直觀的 世界로서 個人의 思考와 언어의 한계를 超越하는 것으로, 修行人 스스로 걸어가야 하고 다달아야 할 ‘意味의 世界’요 ‘삶의 世界’이지 결코 論理나 操作을 통하여 解明되고 證明될 수 있는 ‘事實의 世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宗教의 特性은 私的 體驗이 強調 되기 때문에 이를 具體的 行動用語로 표현하는 데에는 制限性이 있다. 이를 客觀的으로 測定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宗教的 修行 態度를 측정하기 위한 道具製作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함에도 이를 開發하려고 하는 理由는 形而上學的 次元에서 觀念과 直觀에 의해 깨우친 삶의 窮極의 眞理를 實生活에 效率的으로 活用하기 위해서는 形而下學的인 次元에서 事實的 理論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融和 시킴으로써 하나의 世界에 接近 해가는 努力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圓佛敎 修行 Q-set’의 開發을 위한 要因 設計(factorial design)는 圓佛敎 敎理에

根據하여, 圓佛教 修行態도의 三學, 곧 精神修養, 事理研究, 作業取捨를 각각 動과 靜으로 나누고 이의 組合인 6개의 修行領域으로 한다. 그리고 이 6개의 修行領域을 다시 肯定과 否定의 次元으로 構造化 한다. 그러면 모두 12개 下位領域으로 된 要因設計가 된다. 修行의 各 下位領域에 따라 가장 妥當한 問項을 開發한다. 이러한 尺度 開發은 研究者를 包含한 圓佛敎學 또는 敎育學을 전공 하는 敎務에 의해 이루어 진다.

(2) 妥當性的 問題

開發된 '圓佛教 修行 Q-set' 의 妥當性 檢證은 Q-分類의 結果가 敎務와 非敎徒를 정확히 辨別하느냐의 問題에 歸結된다. 따라서 본 研究는 다음의 假說에 따라 이를 檢證 또는 確認 하려고 한다.

첫째, Q-分類 結果의 次元間 平均值 差의 Z 檢證結果는 ① 敎務集團의 경우 肯定 次元의 平均值가 否定次元의 平均值보다 의미 있게 높을 것이고 ② 豫備敎務 集團의 경우 否定次元의 平均值가 肯定次元의 平均值보다 의미 있게 높을 것이며 ③ 非敎徒 集團의 경우도 否定次元의 平均值가 肯定次元의 平均值보다 의미 있게 높을 것이다.

圓佛教 聖職者로서의 敎務는 圓佛教 敎法인 一圓相 眞理를 效率的으로 實踐하기 위하여 修行 精進하는 專門家(노대훈, 1996:69)이다. 이에 반해 豫備敎務는 修行期間이 2 -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初入者이다. 非敎徒는 圓佛教 修行에 문의한이라 할 수있다. 본 研究가 開發한 Q-set가 妥當性을 갖는다면 敎務集團은 肯定次元의 文항들을 자신과 보다 일치하는 文항으로 분류 할 것이며 부정차원의 文항들은 자신과 보다 일치하지 않은것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肯定次元의 平均值가 否定次元의 平均值 보다 의미 있게 높을 것이다. 豫備敎務集團, 또는 非敎徒集團은 否定次元의 文항들을 자신과 보다 일치하는 것으로 분류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정차원의 평균치가 긍정차원의 평균치보다 의미 있게 높을 것이다.

둘째, Q-分類 結果를 領域別로 平均值를 計算하고 그 順位를 정하면 ① 敎務集團의 경우는 上位順位에 肯定 領域이 오고 下位 順位에 否定 領域이 올것이며 ② 豫備敎務集團과 ③ 非敎徒 集團은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Q-分類 結果의 領域平均의 分析은 個人的 內的 構造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Q-分類 結果의 領域의 平均을 計算하여 각 領域의 상대적인 順位를 확인함으로써 그

개인의 主觀的 力動性을 확인 할 수 있다(Stephenson, 1987).

敎務의 修行態度가 肯定的이라면 Q-分類 結果의 領域別 平均値를 계산하여 順位를 정할 경우 上位 順位에는 肯定的 領域이 올 것이며 下位 順位에는 否定的 領域이 올 것이다. 그러나 豫備敎務나 非敎徒의 경우에는 否定 領域이 上位 順位에 오지 않을 것이다.

셋째, Q-分類의 結果를 變量分析하면, 次元의 F값은 敎務集團이 5%이상의 意味水準을 보일 것이나 豫備敎務 集團과 非敎徒 集團은 반드시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본 연구가 개발한 圓佛敎 修行 Q-set가 妥當性을 갖는다면 敎務集團의 Q-分類를 變量分析한 결과, 肯定次元이 5%이상의 의미수준을 가질 것이다. 敎務集團은 肯定的인 修行態度를 확립해 나가는 專門的인 修行人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豫備敎務나 非敎徒들의 경우는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 Q-分類 結果를 被驗者간에 相互相關係數를 計算하면 敎務集團의 相互相關係數(r)는 .40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豫備敎務集團의 相互相關係數와 非敎徒集團의 相互相關係數는 敎務집단의 그것보다 낮을 것이다.

圓佛敎 修行의 特徵은 宇宙의 窮極的 眞理며 人間의 本性인 一圓의 眞理를 믿고 實踐하는데 있다. 이의 效率的인 實踐을 위하여 圓佛敎 敎務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專門的인 敎育과 資格考試를 거쳐 敎團에서 부여하는 敎務 資格 (圓佛敎 專務出身 規定 6條)을 획득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다른 집단에 비하여 共通된 修行態度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의 Q-分類 結果를 바탕으로 計算한 敎務間 相互 相關係數는 확실히 의미 있게 높을 것이다($r=.40$ 이상). 그러나 豫備敎務나 非敎徒들은 이러한 훈련기간이 짧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이들 상호간 相關係數는 敎務집단에 비하여 낮을 것이다.

다섯째, Q-分類 結果를 要因分析한 결과는 敎務集團을 하나의 要因으로 抽出할 것이다. 그러나 豫備敎務集團과 非敎徒 集團은 각각 하나의 要因으로 추출되지 않을 것이다.

要因分析은 檢査가 共通으로 測定하고 있는 特性, 혹은 檢査間的 相互關係 結果 나타난 特性을 추출하는데 사용된다. 이는 測定の 結果에서 나온 여러 檢査 간의 相互關係에서 그 檢査들이 測定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방법이다(백용덕, 1989:306). Q-技法 要因分析은 態度, 選好, 思考, 行動과 같은 變因에 대한 사람 群集(cluster)을 밝혀내는데 有用한 技法이다(Carr, 1992:134). 따라서 圓佛敎 修行態

度에 대한 Q-分類 結果를 要因分析한 結果는 修行態度에 있어서 共有하는 領域이 많은 敎務集團을 하나의 要因으로 추출할 것이다.

(3) 信賴性 問題

개발된 '圓佛敎 修行 Q-set'의 信賴性 檢證은 두번에 걸쳐 Q-分類한 結果間の 一貫性の 문제에 귀결된다. 본 연구는 다음의 假設을 檢證하려고 한다.

첫째, 두번에 걸쳐 Q-分類한 結果 間の 積率相關係數 (γ), 또는 順位差 相關係數 (ρ) 는 매우 높을 것이다.

尺度의 信賴度는 測定 結果의 一貫性인 동시에 測定誤差의 문제이다. 再檢査 信賴度는 어떤 集團을 대상으로 한 檢査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두번 실시하여 前後 檢査結果간의 相關係數를 내는 方法이다. 두 檢査결과 간에 상관계수가 높으면 信賴度가 높다고 할 수 있다(백용덕, 1989:351). 본 研究가 開發한 Q-set가 信賴롭다면 두번에 걸쳐 Q-分類한 결과 간의 積率相關係數와 順位差 相關係數는 매우 높을 것이다.

둘째, 두번에 걸쳐 Q-分類한 결과를 각각 變量分析하면 ① 次元 ② 領域 ③ 相互作用의 結果는 각각 80%이상 一致할 것이다.

만약 '圓佛敎 修行 Q-set'의 信賴度가 높다면 제 1차 Q-分類 결과의 變量分析은 제 2차 Q-分類 결과의 變量分析과 일치할 것이다. 즉, 제 1차 Q-分類의 變量分析 結果, 修行態度 次元에서 意味 있는 차이가 있으면 제 2차 Q-分類의 變量分析 결과, 修行態度 次元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도 성립 할 것이다. 領域과 相互作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 一致率は 80%이상 될 것이다.

셋째, 두번에 걸쳐 Q-分類한 결과를 要因 分析하면 그 결과는 각각 豫備敎務 집단을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할 것이다. 그리고 구성은 80%이상 일치할 것이다.

만일 '圓佛敎 修行 Q-set'의 信賴度가 높다면 제 1차 Q-分類 결과의 要因分析과 제 2차 Q-分類 결과의 요인분석은 일치할 것이다. 즉 제 1차 Q-分類 결과의 요인 분석에서 群集을 이루었던 피험자는 제 2차 Q-分類 結果의 要因分析에서도 群集을 이룰 것이다.

3. 研究의 制限點

본 研究는 다음과 같이 制限한다.

첫째, 본 研究는 圓佛敎의 三學 修行에 局限 한다.

宗教人의 基本的 삶의 態度는 窮極的 實在을 믿고 이를 指向하는 삶의 자세에 있다. 宗教의 機能은 ‘人間의 窮極的 變化에 이르게 하는 手段’이다. 각 宗教는 여러가지 信仰 方式이나 修行方法을 요구 한다. 圓佛敎는 一圓의 眞理에 이르게 하는 方法으로 四恩 信仰과 三學修行을 強調한다. 본 研究는 三學 修行에 局限한다.

둘째, 본 研究는 圓佛敎 修行人의 修行 內的 構造 및 類型을 측정하는 도구개발에 국한한다.

圓佛敎는 修行人의 修行 정도에 따라 法位를 부여한다. 본 研究가 開發하는 Q-set는 法位를 測定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修行人의 內的 構造와 그 類型을 測定하는 尺度를 開發하려는 것이다.

셋째, 圓佛敎 修行 Q-set의 問項數는 12개 下位 領域에 각 5問項씩 총 60개 問項으로 한다.

넷째, 圓佛敎 Q-set의 信賴性 檢證은 再檢査 信賴度 檢證 方法으로 한다.

II. 研究 方法

1. 對象

본 研究의 對象은 세 부류이다. 첫째는 Q-set의 개발을 위한 대상이고 둘째는 개발된 Q-set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대상이며 세번째는 개발된 Q-set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대상이다.

가. Q-set의 開發을 위한 對象

이는 원불교학을 전공하면서 원불교 교무가 되기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교무중에서 무선으로 표집한 104명(남자 60명, 여자 44명)이다. 이들은 Q-set개발을 위한 요인, 12개 영역에서 각각 10개 문항씩을 개발한 120개 문항에서 마지막으로 60개 문항(12개 영역에서 각각 5개 문항씩)을 선정하는데 반응했다.

나. Q-set의 妥當性 檢證을 위한 對象

이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교무 10명(남자 5명, 여자 5명)과 예비교무 10명(남자 7명, 여자 3명) 그리고 비교도 9명(남자 5명, 여자 4명) 총 29명이다<부록 1>. 이들은 개발된 Q-set를 분류했다.

다. Q-set의 信賴性 檢證을 위한 對象

이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예비교무 13명(남자 11명, 여자 2명)과 비교도 17명(남자 9명, 여자 8명)이다<부록 2>. 이들은 개발된 Q-set를 약 1주일 간격을 두고 두 번 Q-분류했다.

2. Q-set의 開發 方法

가. 開發委員會의 構成과 役割

원불교학과 또는 교육학과 석·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교무 10명(연구자도 포함)으로 하여금 Q-set 개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들은 우선 원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Q-set 개발을 위한 요인설계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圓佛敎 正典, 大宗經, 鼎山宗師法語 등을 참고하여 Q-문항을 작성·검토·선정한다. 이 위원회는 원불교 학과 재학생 중에서 무선으로 표집한 104명으로 하여금 Q-문항 개발팀이 만든 Q-문항을 검토하게 한다. Q-문항의 검토는 12개 영역별로 그 적합 정도에 따라 리커트식 5단계 척도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반응 결과를 요인분석하고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영역에서 5개 문항씩 모두 60개 문항을 선정한다.

나. 開發段階

(1) 豫備 Q-問項 開發

Q-set 개발위원회는 원불교 수행 Q-set를 개발하기 위해 우선 원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한 요인설계에 따라 원불교 관련 경전을 참고하여 12개영역에 걸쳐 예비 문항 192개를 작성하였다<부록 4>.

(2) 豫備 Q-問項 檢討 및 選定

192개의 豫備問項은 그 內容妥當性이 원불교학과 교수 8명과 교무 8명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었다. 2명 이상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문항은 제외되었다. 이 결과 28개 문항이 제외되고 164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이 164개의 문항은

검토위원이 다시 검토했다. 그리고 그 타당성의 정도에 따라 각 영역별로 순위가 매겨졌다. 검토위원들이 매긴 순위를 정리하고 각 영역별로 최다 합치 문항 10개씩을 선정하였다. 모두 120개 문항이 선정되었다<부록 5>.

(3) 圓佛教 修行 Q-問項 選定

영역별로 10개씩 선정된 120개 문항에 대하여 원불교학을 전공하는 예비교무 104명으로 하여금 그 적합 정도에 따라 리커트 식 5단계 척도에 반응케 하여 그 결과를 요인분석 했다. 각 영역별로 추출된 제 1 요인에서 요인부하량이 큰 순서대로 5개 문항씩을 선정했다. 그 결과 60개 문항이 선정 되었다. 이 60개가 원불교 수행 Q-set로 선정된 문항들이다.

다. 개발된 Q-set 의 妥當化 檢證

開發된 '圓佛教 修行 Q-set'의 妥當化는 敎務集團, 豫備敎務集團, 非敎徒集團을 대상으로 그 妥當性和 信賴性を 檢證하는 것이다.

(1) 妥當性 檢證

개발된 Q-set는 敎務集團, 豫備敎務集團, 非敎徒集團을 변별할수 있어야 한다.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집단에게 '圓佛教 修行 Q-set'를 分類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하위집단간, 피험자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2) 信賴性 檢證

豫備敎務集團, 非敎徒集團에게 Q-分類를 두번하게 하여 그 분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1차와 2차의 Q-分類 결과간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여 그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3. Q-分類와 配點

Q-문항은 각각 4cm × 10cm의 카드에 인쇄해서 60개의 Q-문항 카드를 만든다. 반응자는 60개 진술문을 '나와 가장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나와 가장 일치하는'과 '나와 가장 일치하지 않은' 사이에는 11개의 분류 단계가 있다. 각 단계에 따라 분류해야 할 카드의 수는 < 표 4 >와 같다.

〈 표 1 〉 Q-分類 段階와 數

분류해야할 카드 수	2	3	4	7	9	10	9	7	4	3	2
점수	1	2	3	4	5	6	7	8	9	10	11

나와 가장 일치하지 않은

나와 가장 일치하는

점수는 Q-분류의 단계에 따라 1점씩 간격을 두고 배점한다. 곧 '나와 가장 일치하는' 11단계에는 11점, 그 다음으로 일치하는 10단계에는 10점 '나와 가장 일치하지 않은' 1단계에는 1점, 그 다음 일치하지 않은 2단계에는 2점, 3단계에는 3점, 4단계에는 4점으로 배점한다. 따라서 Q-분류 카드는 1점에 2개, 2점에 3개, 3점에 4개, 4점에 7개, 5점에 9개, 6점에 10개, 7점에 9개, 8점에 7개, 9점에 4개, 10점에 3개, 11점에 2개씩 분류된다〈 부록 3 〉.

4. 資料 處理의 節次 및 方法

가. 資料 處理 節次

Q-分類 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첫째, Q-분류 결과를 각 피험자별로 채점·정리한다.

둘째, 각 被驗者別, 領域別, 次元別로 總點을 계산한다.

셋째, 각 피험자별로 12개 領域을 그 점수에 따라 順位를 정하고 정리한다. 이는 피험자의 內的 構造를 分析 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각 被驗者別, 領域別, 次元別로 平均值와 標準 偏差值를 계산한다.

다섯째, 각 피험자 별로 變量分析한다. 變量分析은 다음과 같다.

	자유도
次元間(p · n)	1
領域間(Aa, Ab, Ba, Bb, Ca, Cb)	5
相互作用(肯定 · 否定 × 領域)	5
殘餘	48
합계	59

이는 각 피험자의 긍정·부정 차원간, 영역간 상호작용간 차이를 Z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여섯째, 각 피험자간 相互 相關係數를 계산한다. 이는 相關關係分析과 要因分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일곱째, 要因分析한다. 곧 主成分 要因分析(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하고 直交回轉(Varimax Rotation)한다. 이는 피험자 群集(cluster)을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여덟째, 추출한 요인을 대표하는 피험자의 要因 負荷量 및 要因 加重值를 구하여 요인 배열한다.

아홉째, 信賴性를 검증하기 위하여 피험자별로 1차와 2차 Q-분류 결과간의 積率 相關係數(γ)와 順位差 相關係數(ρ)를 계산한다. 그리고 피험자의 1차와 2차 Q-분류 결과를 變量分析하고 그 결과의 일치 정도를 검토한다. 또한 피험자의 1차와 2차 Q-분류 결과를 要因分析하고 그 결과의 일치정도를 검토한다.

나. 資料處理 方法

(1) Q-set의 開發을 위한 資料處理

Q-set의 開發을 위해 蒐集된 資料는 다음과 같이 處理 分析되었다.

첫째, 豫備 Q-問項 開發을 위한 問項의 內容妥當性 判定은 각 領域別 問項에 대하여 16명이 評定한 것을 綜合하여 順位를 定하고 그 順위에 따라 10개 문항씩을 선정하였다.

둘째, 最終 Q-set를 開發하기 위하여 1, 2차 검토를 마친 예비 Q-문항을 각 영역별로 主成分 要因分析(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하고 直交回轉(varimax rotation)했다. 그 結果 각 領域別로 추출된 제 1 要因에서 要因 負荷量이 큰 순서대로 5개 문항씩을 선정했다.

(2) Q-set 妥當化를 위한 資料處理

개발된 Q-set의 妥當化를 위해 蒐集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 분석되었다.

첫째, 妥當性 檢證을 위해서 우선 각 下位 集團(敎務, 豫備敎務, 非敎徒)의 次元(긍정과 부정간)間에 平均值 差를 Z 檢證하였고 領域別로 平均值를 分析했고 被驗者別로 變量分析 하였으며 被驗者間 相關關係를 分析 하였고 要因分析하였으며 要因分析을 바탕으로 要因配列을 했다.

둘째, 信賴性 檢證을 위해서 우선 被驗者別로 1차와 2차 Q-分類 結果間의 積率 相關係數(γ)와 順位差 相關係數(ρ)를 계산하여 그 意味水準을 檢證 하였다. 그리고 1차와 2차 Q-分類 결과를 變量分析하고 要因分析하여 그 結果의 一致程度가 80% 이상인 되는지를 검증하였다.

Ⅲ. 圓佛教 修行 Q-set의 開發

1. 圓佛教 修行 Q-set의 開發을 爲한 要因 設計

원불교 수행 Q-set 開發委員會(석·박사과정 교무 9명과 연구자)는 원불교 수행 Q-set 를 원불교 교리에 근거하여 개발하기 위해서 要因 設計(factorial design)를 했다. 그 내역은 <표 5>와 같다.

<표 2> 圓佛教 修行 Q-set 要因 設計

三	學	動 · 靜	차 원	
			p. 긍정	n. 부정
A. 精 神 修 養	a. 動	動的 精神修養의	肯定(Aap)	動的 精神修養의 否定(Aan)
	b. 靜	靜的 精神修養의	肯定(Abp)	靜的 精神修養의 否定(Abn)
B. 事 理 研 究	a. 動	動的 事理研究의	肯定(Bap)	動的 事理研究의 否定(Ban)
	b. 靜	靜的 事理研究의	肯定(Bbp)	靜的 事理研究의 否定(Bbn)
C. 作 業 取 捨	a. 動	動的 作業取捨의	肯定(Cap)	動的 作業取捨의 否定(Can)
	b. 靜	靜的 作業取捨의	肯定(Cbp)	靜的 事理研究의 否定(Cbn)

$$Q\text{-sample}(N) = (\text{三學})(\text{動.靜})(\text{肯定.否定})(m)$$

$$\text{組合(combinaion)} = (3)(2)(2) = 12$$

$$\text{組合당 問項數}(m) = 5$$

$$N = 12 \times 5 = 60 \text{ 問項}$$

要因設計는 수행 태도를 긍정·부정의 2 차원으로 하고 영역을 敎理의 三學과 그리고 動·靜의 組合으로 構造化 한다. 즉 精神修養, 事理研究, 作業取捨의 三學을 動과 靜으로 나누고 이의 조합으로 생긴 6개의 영역을 修行 領域으로 한다. 그리고 이 6개의 修行 領域을 다시 肯定과 否정의 次元으로 구조화 한다. 그러면 모두 12개의 하위 영역으로 된 요인 설계가 된다. 각 영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動的 精神修養(Aa) : 生活의 不斷한 環境 속에서 활동하면서 外的 對象에 얽매 이거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自由, 精神의 自主力을 얻어 나가기 위한 마음공부이다. 즉 日常生活 속에 모든 사람, 사물을 대할 때 지나치게 執着하지 않도록 하며 자기의 位置, 役割,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서 자기에게 적절한 일에 專念함으로써 마음의 安定을 얻어 나가는 공부이다.

靜的 精神修養(Ab) : 일이 없는 조용한 시간에는 念佛, 坐禪, 祈禱, 呪文 등으로

私心 雜念과 과도한 慾心을 제거하여 흩어지는 精神을 하나로 統一하여 원래의 조용하고 여유 있는 本性을 회복하도록 단련해 나가는 공부이다.

動的 事理研究(Ba) : 實生活 속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問題에 대하여 是非 利害를 바르게 分析하고 判斷하는 能力을 키워 가는 공부이다. 모든 일에 대하여 探究하는 態度로 그 일 그 일에 알음알이를 구하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타인에게 묻고 배우거나 타인과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해 나간다. 세상의 모든 일을 산 교훈 삼아 자신의 견문을 넓혀 나가는 공부이다.

靜的 事理研究(Bb) : 疑頭, 性理, 經典 研磨 등을 통해서 人間과 宇宙의 根源의 理致를 깊이 窮究하고 研磨하는 修行이다. 즉 全體와 部分(本體와 現象)과의 關係, 變化와 不變의 生成 原理를 研磨하여 生死, 苦樂, 因果의 理致를 깨우쳐 나가는 공부이다.

動的 作業取捨(Ca) : 心身을 作用하여 行動할 때 옳은 일은 반드시 實行하고 옳지 않은 일은 결코 行하지 않는 實行力을 키워 나가는 修行이다. 戒文을 지키며(금지 사항) 率性要論을 실행한다(권장 사항).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감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大義(中道)에 맞게 처리 한다.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에 대한 決斷力을 갖도록 노력하는 공부이다. 매사에 注意心을 가지고 끊임없는 精誠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한다.

靜的 作業取捨(Cb) : 일이 있을 때 올바른 實行을 하기 위해서 지난 일을 수시로 返照하고 對照해 나가는 修行을 의미한다. 즉 어떤 일을 처리한 후에 또는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에 하기로 한 일과 하지 않기로 한 일에 대한 實行 有無와 戒文의 犯過 有無와 外的 行動과 內的 마음이 일치하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는 修行이다.

2. 圓佛教 修行 Q-set의 開發 過程

圓佛教 修行 Q-set 開發 委員會는 우선 豫備 Q-문항 192개를 開發하고 이를 檢討委員(圓佛教 學科 教授 8명과 敎務 8명)으로 하여금 檢討하게 하여 164개 문항을 선정한 다음, 다시 이들로 하여금 영역별로 순위를 매기게 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로 10개 문항씩 도합 120문항을 선정했다. 120개 문항은 104명의 예비 교무들로 하여금 그 적합 정도에 따라 5단계 리커트식 척도에 반응케 하고 그 반응 결과를 요인분석 했다. 그 다음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로 5개 문항씩 선정하여(12×5=60) 최종 Q-set, 60개 문항을 개발했다.

〈 표 3 〉 圓佛敎 修行 Q-set

번 호	영 역	진 술 문	예 비 문 항 번 호
1	Aap	나는 갑작스런 위기에 처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는다	2
2	Aan	나는 위급한 일이 생기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당황한다	110
3	Bap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원인을 잘 분석하는 편이다	20
4	Ban	나는 일을 할 때 어느 한 쪽에 치우쳐 폭넓은 사고를 못하는 편이다	119
5	Cap	나는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고 나간다	40
6	Can	나는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35
7	Abp	나는 마음이 언제나 한가롭고 여유가 있다	60
8	Abn	나는 혼자 있을 때 잡념이 많이 일어난다	148
9	Bbp	나는 인간과 자연의 근원적인 문제를 많이 생각한다	77
10	Bbn	아무리 노력해도 우주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163
11	Cbp	나는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남을 탓하기 앞서 나를 먼저 살핀다	92
12	Cbn	나 자신이 하기로 한 일과 안하기로 한 일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78
13	Aap	나는 대화 중 의견충돌이 생겨도 감정이 앞서지 않는다	5
14	Aan	나는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11
15	Bap	나는 사물을 바라볼때 세심하게 관찰하는 자세로 바라본다	21
16	Ban	나는 내가 모르는 점이 있어도 잘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120
17	Cap	나는 매사에 주의심을 가지고 노력한다	41
18	Can	나는 대의보다는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136
19	Abp	나는 염불, 좌선이 일심으로 잘 되는 편이다	66
20	Abn	나는 생각이 많고 주위가 산만하다	152
21	Bbp	나는 우연히 받는 고락의 원인에 대하여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다	78
22	Bbn	나는 깊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	164
23	Cbp	나는 일을 처리하기에 앞서 대의를 먼저 생각한다	93
24	Cbn	나는 사람들이 비난할까보아 일을 시작하기가 겁난다	181

〈 표 3 〉 圓佛敎 修行 Q-set(계속)

번 호	영역	진 술 문	예비 문항 번호
25	Aap	나는 급할 때에도 한 번 멈추어 생각하는 여유를 가진다	10
26	Aan	나는 할 일이 많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112
27	Bap	나는 일을 하는 동안에도 능률적 방법과 효율을 생각한다	25
28	Ban	나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의 인과관계를 잘 파악 하지 못한다	124
29	Cap	나는 매사에 정성을 다한다	45
30	Can	나는 계획은 많은데 실천이 잘 되지 않는다	137
31	Abp	나는 기도의 위력을 체험한 적이 있다	67
32	Abn	나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다	153
33	Bbp	나는 의두 성리 연마에 취미가 있다	80
34	Bbn	나는 죄되고 복되는 이치에 어둡다	166
35	Cbp	나는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반조하는 시간을 갖는다	96
36	Cbn	나는 겉으로는 매우 호의적이지만 안으로는 미워하는 경우가 많다	182
37	Aap	나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편이다	13
38	Aan	나는 좋아하는 물건이나 일, 또는 사람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편이다	114
39	Bap	나는 세상을 산 교훈 삼아 나의 마음을 살핀다	26
40	Ban	나는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는 깊이 생각하기를 꺼려한다	126
41	Cap	나는 항상 공명정대하게 행동한다	46
42	Can	나는 의지보다는 습관에 끌려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140
43	Abp	나는 선(禪)의 참 맛을 즐길 줄 안다	68
44	Abn	나는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155
45	Bbp	나는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어떠하며, 구분된 내역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	81
46	Bbn	나는 배우려고 하는 열의가 부족하다	168
47	Cbp	나는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리는 노력을 많이 한다	98
48	Cbn	나는 내면적인 의지가 굳지 못하고 자주 흔들린다	183

〈 표 3 〉 圓佛敎 修行 Q-set(계속)

번 호	영역	진 술 문	예비 문항 번호
49	Aap	나는 어떤 일에 마음이 움직여도 분별심으로 집착하지 않는다	16
50	Aan	나는 어떤 일을 당하면 쉽게 흥분한다	116
51	Bap	나는 언제나 시비이해를 바르게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29
52	Ban	나는 경솔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129
53	Cap	나는 어떤 상황에서 희로애락과 원근친소에 끌리지 않고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 한다	56
54	Can	나는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할 때 결단력이 부족하여 우유부단한 경우가 많다	142
55	Abp	나는 애착, 탐착이 없이 담담한 편이다	69
56	Abn	나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압박 당하고 있는 느낌을 자주 갖는다	157
57	Bbp	나는 우주자연의 생성 원리에 대해 관심이 많다	86
58	Bbn	나는 자신의 본질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176
59	Cbp	나는 온전한 생각으로 행동하기 위해 수시로 반조하는 시간을 갖는다	99
60	Cbn	나는 자신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용기가 부족하다	184

IV. 圓佛教 修行 Q-set의 妥當化

開發된 圓佛教 修行 Q-set의 타당화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검증되었다. 첫째는 수행기간이 비교적 오래된 교무집단과 수행기간이 짧은 예비교무집단, 그리고 비교도집단에게 이 Q-set를 분류하게 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는 예비교무와 비교도를 대상으로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1. 妥當性 檢證

‘圓佛教 修行 Q-set’의 妥當性 檢證은 첫째, 각 下位 集團(敎務, 豫備敎務, 非敎徒)의 次元(肯定과 否定間)間 平均值 差의 Z 檢證 둘째, 領域의 平均值 分析 셋째, 變量分析 넷째, 被驗者間 相關關係分析 다섯째, 要因分析등이었다. 끝으로 要因分析을 바탕으로 要因配列을 했다.

檢證 結果의 要約은 다음과 같다.

첫째, Q-분류 결과의 次元間 平均值 差의 Z 檢證 결과는 敎務集團은 肯定的이었고 豫備敎務集團과 非敎徒集團은 否定的이었다. 이는 敎務의 圓佛教 修行에 대한 態度는 肯定的이며 豫備敎務와 非敎徒들의 圓佛教 修行에 대한 態度는 否定的임을 뜻한다.

둘째, Q-분류 결과의 領域別로 平均值를 계산하여 그 順位를 定한 결과 敎務集團은 모두 6순위 이내에 肯定次元의 領域들이 있고 豫備敎務集團과 非敎徒集團은 뚜렷한 어떤 傾向을 보이지 않았으나 上位 順位에 否定 次元의 領域이 더 많았다. 이는 敎務의 修行態度가 肯定的인데 대하여 豫備敎務 및 非敎徒의 修行態度는 반드시 그러하지 않음을 뜻한다.

셋째, Q-분류 결과를 變量分析한 결과 敎務는 모두 次元에서 意味 있는 差가 있었다. 곧 모든 敎務들의 圓佛教 修行態度는 肯定的이다. 豫備敎務와 非敎徒는 반드시 그러하지 아니했다.

넷째, Q-분류 결과를 被驗者間에 相互 相關係數를 계산한 결과 敎務集團은 .411에서 .700까지의 비교적 높은 正的 相關이었다. 豫備敎務集團과 非敎徒集團은 비교적

낮은 相關이었다. 敎務集團은 뚜렷하게 한 群集(cluster)을 이루었다.

다섯째, Q-분류 결과를 要因分析한 結果 10명의 敎務 모두가 제 1 要因에 있었다. 요인 2에는 豫備敎務 6명과 非敎徒가 1명이 있었다. 要因分析 結果는 敎務들을 하나의 群集(要因)으로 抽出 했다. 이상의 사실은 개발된 '圓佛教 修行 Q-set'가 敎務와 非敎徒를 정확히 辨別해 낼 수 있음을 검증 한 것이다. 그 妥當性이 입증되었다.

2. 信賴性 檢證

'圓佛教 修行 Q-set'의 信賴性을 檢證하기 위하여 예비교무 13명과 비교도 17명으로 하여금 Q-분류를 두 번 하게 했다. 첫 번째 Q-분류는 1996년 3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실시했고, 두 번째 Q-분류는 같은해 3월 12일과 13일에 실시했다. 두 번에 걸친 Q-분류 결과간에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r)와 Spearman의 순위차 상관계수(ρ)를 계산했다. 그리고 제 1 차와 제 2 차의 Q-분류 결과를 각각 변량분석하고 요인 분석하여 그 결과를 비교했다. 이는 제 1 차와 제 2 차 Q-분류 결과간의 일치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信賴性 檢證 結果의 要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 1 · 2차 Q-분류 결과간의 積率相關 係數(r)는 한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56이상 이었다. 順位差 相關係數(ρ)도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50이상이다. 두 Q-분류 結果間에는 相關이 확실히 있거나 높은 편이다.

둘째, 제 1 · 2차 Q-분류 결과는 次元에서 90%, 領域에서 83.3%, 相互作用에서 80%가 일치했다.

셋째, 제 1 차와 제 2 차 Q-분류 결과의 要因 分析은 다같이 豫備敎務를 제 1 요인으로 抽出했다. 이는 제 1 차와 제 2 차의 Q-분류 결과가 거의 一致함을 뜻한다. 그리고 제 1 요인 構成의 合致 程度는 92% 이었다.

이상 두번에 걸친 Q-분류 결과의 相關關係分析, 變量分析, 要因分析의 結果를 綜合하면 개발된 '圓佛教 修行 Q-set'의 再檢査 信賴性은 매우 良好 하다.

이와같이 開發된 Q-set 의 妥當性과 信賴性을 統計的으로 檢證한 결과 圓佛教 敎理에 根據한 '圓佛教 修行 Q-set'는 妥當하고 信賴로운 尺度임이 確認되었다.

V. 結 論

이상의 結果를 토대로 本 研究는 다음의 結論에 到達할 수 있다.

첫째, 圓佛敎 修行 Q-set는 修行 態度를 肯定·否定의 2 次元으로 하고 領域을 敎理의 三學과 그리고 動·靜의 組合으로 構造化한다. 즉 精神修養, 事理研究, 作業取捨의 三學을 動과 靜으로 나누고 이의 組合으로 생긴 6개의 領域을 修行 領域으로 한다. 그러면 모두 12개의 下位 領域으로 된 要因 設計가 된다. 이 12개의 下位 領域은 具體的인 圓佛敎 修行 類型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Q-分類 結果를 바탕으로 각 下位集團의 次元間 平均值 差의 檢證, 領域의 平均值 分析, 變量分析, 相關關係分析, 要因分析의 檢證 結果 開發된 '圓佛敎 修行 Q-set'는 圓佛敎 修行態度를 診斷하기 위한 尺度로서 妥當하다. 즉 敎務와 非敎徒의 修行 態度를 正確히 辨別해 낼 수가 있다.

셋째, 두번에 걸친 Q-分類 結果를 바탕으로 相關係數의 計算, 變量分析, 要因分析의 檢證 結果 제 1 · 2차 Q-分類 結果는 그 一致 程度가 높다. 따라서 '圓佛敎 修行 Q-set'는 信賴性이 있다.

〈 부록 5 〉 Q 분류 안내문

이 검사는 평소 자신의 '마음공부'에 대한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카드 안에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자신의 수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한 항목씩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모두 60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류판은 카드를 분류하기 위한 것인데 11개의 칸이 있으며 각 칸에는 -5에서 5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칸(숫자 -5)은 카드를 분류할 때 카드 속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을 '가장 잘못' 표현한 문항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칸(숫자 5)은 여러분을 '가장 잘' 표현한 문항을 배치하는 칸입니다.

1. 우선 카드에 적힌 진술문을 잘 읽어 숙지한 다음 두 집단으로 분류하십시오. 즉 진술문의 내용이 여러분 자신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것과, 여러분 자신과 일치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분류하십시오.
2. 이번에는 여러분과 일치한다고 분류된 진술문을 서로 비교하여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진술문(카드) 중 2개를 골라 숫자 5 위에 놓고, 여러분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진술문(카드) 중 서로 비교하여 '가장 일치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 2개를 골라 숫자 -5 위에 놓으십시오.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여러분과 일치한 것으로 분류된 나머지 카드를 서로 비교하여 4의 숫자 위에 3개, 여러분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카드를 서로 비교하여 -4의 숫자 위에 3개를 놓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과 왼쪽 번갈아 가면서 카드를 배치하십시오. 그러면 맨 나중에는 '0'의 숫자위에 10장의 카드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카드는 여러분을 가장 잘 표현한 문항부터 가장 잘못 표현한 문항 순으로 5에서부터 -5까지 분류될 것입니다.
각 숫자위에 배치해야 할 카드의 수는 그 숫자 윗면에 적혀 있습니다. 즉 5의 숫자위에는 2장, 4의 숫자위에는 4장 등 해당 칸에 배치해야 할 카드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매수

2	3	4	7	9	10	9	7	4	3	2
1	2	3	4	5	6	7	8	9	10	11

순위

반드시 해당 칸에 쓰여있는 수 만큼만 카드를 배치하십시오.

- 이번에는 각 숫자위에 배치된 카드를 서로 비교하여 자신에 비추어 일치성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즉 5의 숫자위에 있는 2장의 카드를 서로 비교하여 Q-분류채점판에 카드의 번호를 순위에 따라 적어 넣으십시오. 그 다음 4의 숫자판위의 3장의 카드를 서로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그 번호를 채점판에 적어 넣으십시오.

* 일단 배치가 되었더라도 그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